

고학년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간호역량 영향요인: King의 역동적 상호작용 체계모형을 중심으로

조인영¹, 윤지영^{2*}, 김효진³

¹전남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²예수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³동강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Factors affecting Person-Centered Care Competence for senior nursing students: Focused on King's dynamic interaction system model

In Young Cho¹, Ji Yeong Yun^{2*}, Hyojin Kim³

¹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Jesus University

³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g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King의 역동적 상호작용체계를 기반으로 고학년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4학년 간호대학생 242명을 대상으로 2021년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google 설문지를 통해 윤리적 민감성, 동료돌봄행위, 대인관계유능성, 사회적지지, 인간중심간호역량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program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인간중심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계유능성($\beta=0.42, p<.001$)과 사회적지지($\beta=0.29, p<.001$)였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44.1%였다($F=23.77, p<.001$). 본 연구는 개념적 기틀을 바탕으로 고학년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대인관계적, 사회적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인간중심간호역량, 간호대학생, 대인관계 유능성, 사회적지지, 윤리적 민감성

Abstract We aimed to identify personal-interpersonal-social factors influencing Person-Centered Care Competence (PCCC) of senior grade nursing students based on King's dynamic interaction system model.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online based questionnaires that contained items on ethical sensitivity, peer group care interaction, interpersonal competence, social support and PCCC. The participants were 242 4th grade nursing students who had undergone clinical practicum.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SPSS 26.0. In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terpersonal competence($\beta=0.42, p<.001$) and social support($\beta=0.29, p<.001$)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explained 44.1% of PCCC($F=23.77, p<.001$).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we identified the factors affecting the Person-centered Care competence based on King's conceptual framework. This study could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n intervention program to improve PCCC of senior nursing students.

Key Words : Person-Centered Care Competence, Nursing students, Interpersonal competence, Social support, Ethical sensitivity

*Corresponding Author : Ji Yeong Yun(yunjiyeong0221@gmail.com)

Received May 23, 2021

Accepted August 20, 2021

Revised July 19, 2021

Published August 28, 2021

1. 서론

1.1 서론

최근 의료기술 및 과학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은 점차적으로 연장되어, 2030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20.3%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될 것으로 예상된다[1]. 또한, 교육수준의 향상과 인터넷 보급화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상자의 기대수준과 요구도의 상승으로 치료과정에도 의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2]. 이러한 변화는 대상자가 기대하는 간호사의 역할에도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미래의 간호 주역인 간호대학생은 변화하는 보건의료패러다임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3].

인간중심간호란 인간의 신체·심리·사회·영적 요구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가치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으로서 [4,5], 개별화된 돌봄(individualized care)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최근, 의학을 포함한 보건의료계열에서는 이러한 인간중심적 접근방식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학부 교과과정에 적용하는 추세이다[5-8]. 간호교육에서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통합교육과정 개설 등에 대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간호교육과정은 급성기 중심의 간호와 핵심술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보건의료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요구되는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교육과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겠다[3,9,10]. 이러한 인간중심간호는 지속적인 학습, 훈련 등을 통해 강화될 수 있으므로[11,12], 다각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간호사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간호역량이 증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인간중심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관리하여[6,13], 졸업 후 다양한 현장에서 질병 중심이 아닌 대상자 중심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인간중심간호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의 간호교육의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King[14]의 역동적 상호작용체계[14,15]를 기반으로, 미래의 간호 주역이 될 고학년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개인체계, 대인관계적, 사회적 체계를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King[14]의 상호작용체계모형[14,15]에서 개인체계

(Personal system)는 인간을 간호사와 환자이기 전에 하나의 총체적 체계로 보며, 지각, 자아, 신체상, 성장과 발달 등의 개념을 통해 개인을 이해하는 것을 강조한다 [15]. 이러한 관점에서 간호사는 전문직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 수준을 기반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윤리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간호 실무에 있어 윤리적 개념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16]. 윤리적 민감성이 낮을 경우,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해 즉각적이고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윤리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간호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17]. 과거에 비해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민감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인간중심간호역량의 개인적 체계가 강화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대인관계적 체계(Interpersonal system)는 역할, 상호작용, 의사소통, 교류작용 등과 관련되는 개념이다 [15]. 선행연구[18]에서 동료 간의 동료돌봄행위는 간호대학생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동료집단 내 간호대학생은 돌봄을 제공받는 상황을 통해 돌봄 행위들을 행동화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동료돌봄행위는 간호의 대상이 되는 대상자와의 관계 뿐만 아니라 진정성 있는 돌봄 관계 안에서의 간호전문인으로 성장할 간호대학생에게도 강조되어야 할 체계라고 할 수 있다[19].

또 다른 대인관계적 요인으로서 대상자, 보호자 및 의료진과 다양한 형태의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 대상의 연구[20]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이 공감능력과 돌봄효능감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미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대인관계 유능성은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대상자들과의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 질 높은 간호를 실천하며, 환자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21].

사회적 체계(Social system)는 관계형성에 있어 대인관계적 측면을 넘어선 조직적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사회 안에서 공통의 목표, 관심 등을 가진 집단들의 조직 구성으로, 이는 사회적 체계 내에서 사회적 행동, 상호작용, 지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15]. 교수 지지, 조직적 지지 등을 포함하는 이러한 사회적지지는 간호대학생의 심리, 정신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리적 자원 중 하나이다[22]. 개인의 사회적지지에 따라 심리적 안정감과 스트레스에 차이를 보인 연구[23,24] 등

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전문성을 지닌 간호사로서 성장하는데 사회적지지는 매우 주요한 요인임을 예측할 수 있겠다.

인간중심간호에 대해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의료기관 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임상경력, 감성지능, 공감, 셀프리더십, 전문직관, 팀워크, 근무환경, 조직문화 등 간호사의 인간중심간호의 예측요인을 확인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25-28]. 즉, 이론을 기반으로, 신입간호사로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인 고학년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King[14]의 역동적 상호작용 체계모형[14,15]을 개념적 기반으로 개인적-대인관계적-사회적 측면을 바탕으로 변수 간 관계를 설정하고,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고학년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더 나아가 인간중심간호역량 증진을 위한 커리큘럼 및 증재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King[14]의 역동적 상호작용 체계모형 [14,15]을 기반으로 고학년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간호역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간중심간호역량, 윤리적 민감성, 동료돌봄행위, 대인관계유능성, 사회적지지 수준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윤리적 민감성, 동료돌봄행위, 대인관계유능성, 사회적지지, 인간중심간호역량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인간중심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1.3 개념적 기틀 및 가설적 모형

본 연구는 Fig. 1과 같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인간'에 초점을 두고, 개인체계-대인관계 체계-사회적 체계에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King[14]의 역동적 상호작용 체계모형[14,15]을 개념적 기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인체계는 일반적 특성과 윤리적 민감성으로, 대인관계적 체계는 동료돌봄행위와 대인관계유능성으로, 사회적 체계는 사회적지지로 설정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체계인 윤리적 민감성, 대인관계적 체계인 동료돌봄행위, 대인관계유능성, 사회적체계인 사회적지지를 중심으로 인간중심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임상 실습 경험이 있는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 모집을 위해 간호대학생 커뮤니티, 카페 및 SNS(Social Network System)를 통해 각 해당 관리자에게 모집공고와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연구 참여에 희망하는 대상자 스스로가 온라인 설문 URL에 접속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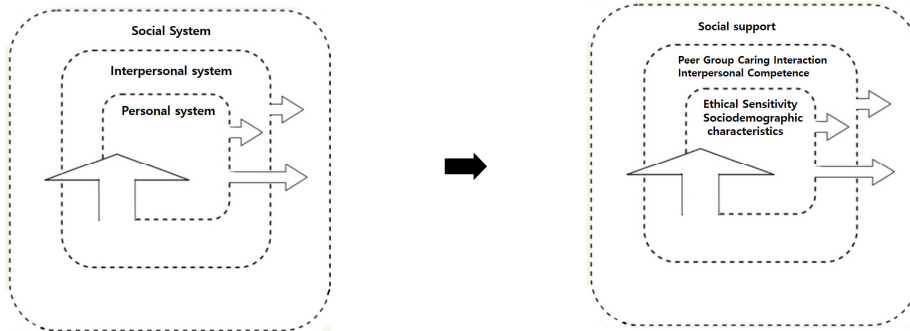


Fig. 1. Hypothetical model based on the King's Conceptual System

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대상자 수는 간호대학생의 간호 역량을 조사한 선행연구[29]를 근거로 회귀분석의 중간효과크기로 하여 G^* powd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효과 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했을 때 다중회귀분석의 임의 추정 예측변수의 수를 최대 15개로 감안하여, 필요 표본 수를 산정한 결과 최소 199명이 요구되었다. 이에 탈락율 20%를 고려하여 설문조사에 총 242명이 참여하였고, 그 중 탈락한 설문 없이 최종 242부를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는 일반적 특성 18문항, 윤리적 민감성 13문항, 동료돌봄행위 12문항, 대인관계유능성 31문항, 사회적지지 14문항 및 인간중심간호역량 17문항으로 구성된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측정하였다.

2.3.1 윤리적 민감성

윤리적 민감성이란 도덕적 가치문제를 인식하고 갈등이 있는 대상자의 취약한 상황에서 대상자를 위한 결정이 윤리적일 수 있도록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으로[30],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Muramatsu 등[31]이 개발하고, Min, Kim & Lee[32]가 한국어판으로 수정 번안 후,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윤리적 민감성 측정도구(Ethical Sensitivity Questionnaire for Nursing Students, KESQ-N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환자에 대한 비판적 이해 5문항, 환자 전 인간호 5문항, 환자 사생활 및 정보보호 3문항의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윤리적 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82였으며, Min, Kim & Lee[3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1~.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67이었다.

2.3.2 동료돌봄행위

본 연구에서 동료돌봄행위는 Hughes[33]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Kim, Kong과 Oh[34]가 한국어판으로 번역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동료돌봄행위척도(Peer Group Caring Interaction Scale Korean version, PGCIS-K)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총 12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6점의 6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동료 간의 돌봄행위정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94, Kim, Kong과 Oh[34]의 연구에서 PGCIS-K의 Cronbach's α 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3이었다.

2.3.3 대인관계유능성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유능성은 Buhrmester 등[35]이 개발한 도구를 Han과 Lee[36]가 한국어판으로 번안 후 타당도를 검증한 대인관계유능성질문지(Korean Version of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K-ICQ)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31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유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83이었고 Han과 Lee[3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4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3이었다.

2.3.4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Lent 등[37]이 개발하고, Lee[38]가 한국어로 수정 번안 후 타당도를 검증한 사회적지지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14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nt 등[37]의 연구에서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2.3.5 인간중심간호역량

인간중심간호역량은 Suhonen 등[39]이 개발하고 Park[40]가 한국어로 번안한 인간중심간호측정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인간으로서 대상자의 개별성 존중을 기본으로 하여, 임상적 상황, 개인적 삶의 상황, 의사결정통제 하위영역의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간중심간호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Cronbach's α =.88이었으며, Park[4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9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3이었다.

2.4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1년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시행되었다. 연구 대상자 모집을 위해 간호대학생 커뮤니티, 카페 및 SNS(Social Network System)를 통

해 각 해당 관리자에게 모집공고와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연구 참여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연구 참여 공고문 확인 후,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URL에 접속하여 연구에 대한 설명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명문 확인 후 최종적으로 연구참여를 결정한 대상자는 자발적으로 참여동의서에 체크한 후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연구설명문 내에는 연구 목적 및 방법, 설문조사에 소요시간, 연구 참여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혜택, 연구 참여 및 중단에 대한 내용 및 본 설문지의 비밀유지와 익명성 유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다. 본 설문은 1회의 설문작성으로 종료되며, 설문 작성 시 약 15분~20분 정도 소요되었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윤리적 민감성, 동료돌봄행위, 대인관계유능성, 사회적지지, 인간중심간호역량은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간중심간호역량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분석은 Duncan test를 이용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간호역량과 주요 변수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고, 인간중심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력방식 다중회귀분석(Enter multiple line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C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1040198-210205 -HR-015-02)을 받은 후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 전 비밀보장 및 윤리적 측면과 연구 종료 후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해 설명문을 통해 안내하였으며, 개인정보는 무기명으로 처리하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 종료 후 3년까지 보관하며, 보관시기 이후에는 자료를 폐기함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한 후 자료수집에 동의 한 대상자는 동의서 뒤에 연결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후 참여 답례품을 받기 희망하여 휴대폰 번호를 자발적으로 기입한 대상자에게 참여답례품인 모바일 쿠폰을 전송하였다.

Table 1. Differences in PCCC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N=242)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n (%)	t / F	p
Gender	Female	3.90±0.66	206(85.1)	-0.19	.847
	Male	3.93±0.63	36(14.9)		
Age (average 24.18±2.83)	≤23	3.89±0.70	130(54.0)	-.35	.730
	≥24	3.92±0.60	112(46.0)		
Religion	None	3.92±0.64	176(72.7)	0.36	.723
	Have	3.88±0.67	66(27.3)		
Location of university	Honam Province	3.86±0.68	80(33.1)	1.38	.253
	Yeongnam Province	4.04±0.55	50(20.7)		
	Central Province	3.88±0.67	112(46.3)		
Perceived health status	Bad ^a	4.13±0.50	43(17.8)	3.56	.030
	Normal ^b	3.83±0.71	118(48.8)		
	Good ^c	3.90±0.61	81(33.5)		
Motivation for entering college	By own choice	3.93±0.64	150(62.0)	0.84	.404
	other reasons	3.86±0.68	92(38.0)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Not satisfied	3.93±0.54	39(16.1)	2.16	.118
	Moderate	3.80±0.66	90(37.2)		
	Satisfied	3.98±0.67	113(46.7)		
Major Satisfaction	Not satisfied	3.89±0.32	18(7.4)	.40	.671
	Moderate	3.84±0.74	57(23.6)		
	Satisfied	3.93±0.65	167(69.0)		
Clinical practicum Satisfaction	Not satisfied	3.89±0.54	45(18.6)	.20	.821
	Moderate	3.88±0.70	91(37.6)		
	Satisfied	3.94±0.66	106(43.8)		

PCCC : Person-Centered Care Competence, [†]post hoc : Duncan test

3. 연구결과

3.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간중심간호역량 차이

본 연구결과 여자가 206명(85.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평균나이는 24.18세였다. 176명(72.7%)의 대상자가 종교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학교의 위치는 중부권 112명(46.3%), 호남권 80명(33.1%), 영남권 50명(20.7%) 순으로 나타나, 다양한 지역의 학생이 골고루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43명(17.8%) 만이 ‘좋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자신의 선택으로 간호학과에 진학한 대상자는 150명(62.0%)이었고, 스스로의 결정이 아닌 다른 이유로 간호학과에 진학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92명(38.0%)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전공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113명(46.7%), 167명(69.0%)의 대상자가 ‘만족’으로 응답하였으며, 임상실습 만족 정도는, ‘만족’ 106명(43.8%), ‘보통’ 91명(37.6%), ‘불만족’ 45명(18.6%)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간중심간호역량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인간중심간호역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F=3.56, p=.030$), 사후 분석결과, “좋지 않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인간중심역량이 “보통이다.” 또는 “좋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인간중심간호역량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 외, 성별, 연령, 종교, 대학위치, 간호학 지원동기, 대학생활, 전공,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른 인간중심간호역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2 대상자의 윤리적 민감성, 동료돌봄행위, 대인관계유능성, 사회적지지, 인간중심간호역량 정도

대상자의 윤리적 민감성, 동료돌봄행위, 대인관계유능성, 사회적지지, 인간중심간호역량 정도는 Table 2와 같

Table 2. Variables of Nursing students (N=242)

Variables	M±SD	Min	Max
ES	3.61±0.49	2.69	5.00
PGCI	4.31±0.96	1.00	6.00
IC	3.68±0.55	2.16	5.00
SS	3.93±0.61	1.79	5.00
PCCC	3.91±0.65	1.24	5.00

ES : Ethical Sensitivity, PGCI : Peer Group Caring Interaction Scale, IC : Interpersonal Competence, PCCC : Person-Centered Care Competence

다. 윤리적 민감성은 평균 3.61±0.49점, 동료돌봄행위는 평균 4.31±0.96점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유능성은 평균 3.68±0.55점이었고, 사회적지지는 평균 3.93±0.61점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결과변수인 인간중심간호역량은 평균 3.91±0.65점으로 나타났다.

3.3 대상자의 윤리적 민감성, 동료돌봄행위, 대인관계유능성, 사회적지지, 인간중심간호역량 간 관계

대상자의 인간중심간호역량과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인간중심간호역량과 윤리적 민감성 ($r=.23, p<.001$), 동료돌봄행위($r=.36, p<.001$), 대인관계유능성($r=.61, p<.001$), 사회적지지($r=.55,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3. Correlation of Variables (N=242)

Variables	ES	PGCI	IC	SS
PGCI	.20*			
IC	.28**	.41**		
SS	.24**	.51**	.55**	
PCCC	.23**	.36**	.61**	.55**

** $p<.001$, * $p<.05$, ES : Ethical Sensitivity, PGCI : Peer Group Caring Interaction Scale, IC : Interpersonal Competence, PCCC : Person-Centered Care Competence

3.4 대상자의 인간중심간호역량 영향 요인

회귀모형을 검증하기 전,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 충족에 대한 검토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79~.89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12~1.70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잔차분석결과, Durbin Watson 통계량이 1.90으로 2와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잔차의 상호독립성을 만족하였다. 따라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 가정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인간중심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윤리적 민감성, 동료돌봄행위, 대인관계유능성 및 사회적지지와 일반적 특성 중 인간중심간호역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주관적 건강상태를 더미변수 처리한 후, 연구자가 대상자의 인간중심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는 변수를 동시에 투입하는 입력방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분석 결과, 대상자의 인간중심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계유능성($\beta= 0.42, p<.001$), 사회적지

Table 4. Factors Influencing PCCC of Nursing students

(N=242)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61	.30		2.02	.045
Subjective health status 1†	.07	.09	.04	0.79	.431
Subjective health status 2†	-.03	.07	-.02	-0.39	.700
ES	.05	.07	.04	0.72	.472
PGCI	.01	.04	.02	0.37	.709
IC	.50	.07	.42	6.96	<.001
SS	.31	.07	.29	4.52	<.001
R ² =.441, Adjusted R ² =.426, F=30.85, p <.001					

SE=standard error; †Dummy variable : Subjective health status(0=Bad, 1=Average, 2=Good), ES : Ethical Sensitivity, PGCI : Peer Group Caring Interaction Scale, IC : Interpersonal Competence, PCCC : Person-Centered Care Competence

지($\beta = 0.29, p < .001$)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30.85, p < .001$),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44.1%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고학년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민감성, 동료돌봄행위, 대인관계유능성, 사회적 지지가 인간중심간호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간호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돌봄을 적용할 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 소통을 통해 개별화된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개별화된 인간중심간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와의 상호작용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King[14]의 역동적 상호작용체계[14,15]를 근거하여 본 연구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연구 대상자의 인간중심간호역량은 5점 만점에 평균 3.91점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1,40]에서 3.8점, 4.01점으로 측정된 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간호대학생의 내재된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최근 대학 및 학과를 선택함에 있어, 적성, 자신의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보다, 취업, 성적, 주위의 권유에 따라 선택하는 경향이 있지만[41],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간호학과에 지원했는지라도, 결국, 인간에 대한 존중, 공감, 이해가 내재되어 있는 지원자들이 주로 간호학을 선택하여 나타난 결과로 생각해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King[14] 역동적 상호작용체계[14,15]의 개인 체계 요인은 일반적 특성과 윤리적 민감성으로 측

정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인간중심간호역량의 차이를 보였는데,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인간중심간호역량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간호대학생이 자신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입장을 더 고려하게 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유추해볼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에 따른 인간중심간호역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선행연구[11]와 상이한 결과로, 선행연구[11]에서는 1-4학년을 대상으로 조사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4학년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대상자 선정에 차이를 보였다. 임상실습을 경험한 4학년 간호대학생의 경우,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임상실습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간호사의 역할, 윤리적 가치, 대상자와 의사소통 등의 경험이 통합적으로 축적되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1-4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연구에서는 실습 경험에 대한 고려는 확인되지 않아, 선행연구와 본 연구 결과가 상이한 것에 대해 대상자 선정에 따른 차이로 일반화 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대상자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파악 및 상관성을 확인하고, 상관성이 확인된 변수들에 대한 공분산 처리 후 전공만족도 및 임상실습만족도가 인간중심간호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한편, 윤리적 민감성은 인간중심간호역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윤리적 민감성과 인간중심간호역량 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가 미비하여, 직접적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7]에서,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대상자에게 직접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에게 윤리적 민감성은 반드시 요구되나, 현재의 실습교육과정을 통해서 간호대학생이 윤리적 민감성을 주도적으로 경험하는 것

은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므로, 학부 교육과정에서부터 윤리적 갈등을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적용 등 사례를 기반으로 한 교수법 등을 개발하여 윤리적 민감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러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7]에서는 윤리적 민감성이 인간중심간호를 4% 설명하였고, 본 연구결과, 윤리적 민감성은 인간중심간호역량에 유의한 영향요인이 되지 못하였다. 윤리적 민감성은 전문성에 근거한 윤리적 가치를 기반으로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수행하는 임상적 판단으로[42], 본 연구에서 윤리적 민감성이 인간중심간호역량의 영향요인이 되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볼 때, 간호대학생의 경우 윤리적 민감성의 개념 및 중요성에 대해서는 학부의 교양 및 전공 등 여러 교과과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학습되었을지라도, 윤리적 판단을 위한 선행요건인 간호사로서의 전문성이 아직 미형성되어 윤리적 민감성이 인간중심간호역량의 영향요인으로까지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이에 현재, 전문성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 중인 간호대학생이 향후 간호사로서의 전문성이 확보되었을 때, 인간중심간호역량의 선행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를 단편적으로 활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민감성과 인간중심간호역량 간 관계를 일반화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되며, 향후 반복연구를 통해 윤리적 민감성과 인간중심간호역량 간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

King[14]의 대인관계적 측면은 대인관계유능성과 동료돌봄행위로 측정하였고, 대인관계유능성은 인간중심간호역량의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1,43]를 지지하였다. 또한, 의료계열 대학생의 의사소통태도, 의사소통 자신감과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인간중심간호가 높았던 연구[11]와도 일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대인관계유능성은 인간중심간호역량을 형성하는데 있어 반드시 요구되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간호사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보건의료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의 역할이 요구되는데, 다양한 현장의 대상자에게 개별화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유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중심의 사회는 더 이상 일시적이 아닌 일상화 되어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다. 과거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관련된 역량은 일상생활의 개별적 경험을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학습될 수 있었으

나, 사회적 변화로 인해 일상을 통한 학습의 기회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는 대인관계역량 증진을 위해 학과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실제적 방안으로써, 학과 비대면 교과 운영 시 다양한 에듀테크 등을 활용하여 쌍방향 의사소통을 실시하고, 동료학습의 기회를 마련하여 동료 간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시뮬레이션,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역할극 등의 교수학습법 등을 활용하여, 임상상황을 모의 구성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치료적 의사소통에 대해 지식적으로 학습하는 것에서 나아가 가상의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즉, 문자나 이모티콘을 이용한 의사소통에 익숙한 현재의 간호대학생들이 주도적 태도를 가지고 타인과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인간심리, 사고기술, 상담 등의 교양교과를 개설하여 타인에 대한 사고 확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다. 그 외, 비 교과 활동으로써 지도교수와 의 모인, 타 전공자와의 교류, 동아리, 교내외 프로그램 참여를 격려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돌봄은 경험을 통해 학습되는 능력으로[44], 연구결과, 동료돌봄행위와 인간중심간호역량간 상관성이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의 동료돌봄행위와 인간중심간호역량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가 미비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동료지지를 통해 돌봄능력과 간호수행능력이 향상되고[44,45],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동료돌봄행위가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한 연구[18]와 유사한 맥락을 유지한다. 그러나, 회귀분석결과, 영향요인으로서 인간중심간호역량을 설명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중심의 수업운영체제의 영향으로 보이며, 수업을 통해 교류하였던 학생 간 만남의 기회가 확연히 감소되어, 교과 비교과과정을 통해 경험하였던 동료돌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게 되어 나타난 결과로 유추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와 본 연구를 종합해 볼 때, 동료돌봄행위를 통한 인간중심간호역량의 증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교수자는 동료활동과 관련된 교수학습방법을 사전에 고려하여 수업을 운영하도록 하여, 간호대학생의 동료돌봄행위 및 인간중심간호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34].

마지막으로 King[14]의 사회적 체계 측면[15]은 사회적지지로 측정하였고, 이는 인간중심간호역량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King[14]의 역동적 상호작용 체계모형에서 사회적 체계[15]는 대인관계를 넘어선 조직적 측면

을 의미한다[15].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인간의 교육이나, 역할모델, 사회정체성을 제공하는 집단의 사회망을 형성하는 공식적 활동이라는 측면[46]에 관심을 갖고 변수를 선정하였다. 즉, 간호대학생은 학교 내 학사 일정 준수, 교수자와의 관계 등을 통해 사회적 체계가 형성되고, 가장 공식적이고 조직적인 관계를 형성하므로, 사회적 지지를 통해 사회적-조직적 측면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국내 간호학 문헌을 대상으로 한 주제범위 문헌고찰연구[47]에서, 인간중심돌봄은 의료진의 개인 수준이 아닌, 조직이나 기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며, 개념적인 접근보다 제공자의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논의되었는데, 이는 조직적 측면에서 인간중심간호역량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서론에서 언급된 바, 국내 인간중심간호와 관련된 간호학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간호대학생으로 확대해서 해석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반복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조직적 측면과 인간중심간호역량간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King의 역동적 상호작용 체계를 근거로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간호역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 결과, 대인관계유능성, 사회적지지가 고학년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인간중심간호역량의 44.1%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간호역량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개념적 기틀을 바탕으로 개념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가설 수립하고 검증하였다는 점과, 궁극적으로 고학년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간호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인간중심간호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각 학년별 인간중심간호역량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검증을 제언한다. 또한, 현재 간호학 분야의 인간중심간호 관련 연구는 대부분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다양한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분야별 간호사의 인간중심간호수준 파악하고 영역에 따른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9). Population Growth Estimation. KOSIS. Retrieved from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
- [2] J. S. Kim & Y. S. Han. (2017). The Effect of Household Type on the Medical Burden of the Elderly Living in a Local Government that has Entered a Super-aged Society.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7), 610-621. DOI : 10.5392/JKCA.2017.17.07.610
- [3] K. J. Kim, B. Y. Jang, J. Y. Jung & O. W. Park. (2018). The Coming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HRD Issues for Nurses - Prospects and Challenges. *Korean Association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21(3), 137-159. DOI : 10.24991/KJHRD.2018.09.21.3.137
- [4] S. Morgan & L. H. Yoder. (2012). A Concept Analysis of Person-Centered Care. *Journal of Holistic Nursing*, 30(1), 6-15. DOI : 10.1177/0898010111412189
- [5] K. Brummel-Smith, D. Butler, M. Frieder, N. Gibbs, M. Henry & B. C. Vladeck. (2016). Person-centered care: A definition and essential elements.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64(1), 15-18. DOI : 10.1111/jgs.13866
- [6] S. Rosewilliam, V. Indramohan, R. Breakwell & J. Skelton. (2020). Learning to be patient-centred healthcare professionals: how does it happen at university and on clinical placements? A multiple focus group study. *MedEdPublish*, 9(1), 1-17. DOI : 10.15694/mep.2020.000053.1
- [7] K. Michael, M. G. Dror & O. Karnieli-Miller. (2019). Students' patient-centered-care attitudes: The contribution of self-efficacy, communication, and empathy.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102(11), 2031-2037. DOI : 10.1016/j.pec.2019.06.004
- [8] H. L. Moore, A. Farnworth, R. Watson, K. Giles, D. Tomson & R. G. Thomson. (2021). Inclusion of person-centred care in medical and nursing undergraduate curricula in the UK: Interviews and documentary analysis.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104(4), 877-886. DOI : 10.1016/j.pec.2020.09.030
- [9] S. J. Kim. (2008). Mind-body Integrative Approaches in Nursing. *The Korean Society of Stress Medicine*, 16(3), 287-294.

- [10] S. H. Hong. (2011). A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Caring in Nursing Science. *Korean Society For Phenomenology*, 9, 213-241.
- [11] M. H. Lim. (2020). Effect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n Person Centered Car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18(3), 35-43. DOI : 10.22678/JIC.2020.18.3.035
- [12] A. M. Jinks, A. Cotton & P. Murphy. (2013). Nursing students' attitudes toward patient-centred care in the United Kingdom.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and Practice*, 3(12), 116-124. DOI : 10.5430/jnep.v3n12p116
- [13] J. K. Schwind, H. Beanlands, J. Lapum, D. Romaniuk, S. Fredericks, K. LeGrow, S. Edwards, E. McCay & J. Crosby. (2014). Fostering person-centered care among nursing students: Creative pedagogical approaches to developing personal knowing.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53(6), 343-347. DOI : 10.3928/01484834-20140520-01
- [14] I. M. King. (1971). *Toward a theory for nursing: General concepts of human behavior*. New Jersey : John Wiley & Sons Publishing.
- [15] S. W. Lee, J. H. Kim, B. S. Lee, M. S. Jeong, M. Yu, D. S. Lee, S. J. Jang & D. L. Han. (2017). *Understanding Nursing Theory*. Paju : Soomoonsa Publishing.
- [16] Y. S. Kim, M. S. Yoo, J. W. Park & Y. J. Son. (2001). Relationship between nurses' self concept and ethical concept.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7(3), 415-423.
- [17] K. Weaver, J. Morse & C. Mitcham. (2008). Ethical sensitivity in professional practice: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2(5), 607-618. DOI : 10.1111/j.1365-2648.2008.04625.x
- [18] S. A. Whang. (2019). The Influence of Clinical Practice Stress, Ego-Resilience, and Peer Group Caring Interaction on Adaptations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 - 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6), 807-823. DOI : 10.22251/jlcci.2019.19.16.807
- [19] M. S. Jang & S. J. Kim. (2019). Person-Centered Relational Care Experienced by Critical Care Nurses: An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Stud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9(4), 423-436. DOI : 10.4040/jkan.2019.49.4.423
- [20] J. S. Lee. (2019). *Effects of the Empathy of Nursing Students on Careful Effectiveness :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Master's thesis. Kunsa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Kunsan.
- [21] M. S. Chung. (2014). Relations on Self-esteem, Empath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 Reinforcing Competence in Communication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 332-340. DOI : 10.5977/jkasne.2014.20.2.332
- [22] O. S. Oh. (2017).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 Moder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5), 107-130. DOI : 10.21509/KJYS.2017.05.24.5.107
- [23] J. Y. Lee & W. Y. Choi. (2012). The Mediating Effects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in the Relation between College Students Social Support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3(3), 1481-1499.
- [24] H. J. Choi & K. I. Jung. (2018). Moder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job-seeking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preparing for employ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4(1), 61-72. DOI : 10.11111/jkana.2018.24.161
- [25] Y. S. Park & E. G. Oh. (2018). Factors related to intensive care unit nurses' patient centered communication competency. *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 11(2), 51-62.
- [26] H. Jeong & M. H. Park. (2019). A Predictive Model on Patient-Centered Care of Hospital Nurs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9(2), 191-202. DOI : 10.4040/jkan.2019.49.2.191
- [27] E. M. Park & J. H. Park. (2018). Influence of Moral Sensitivity and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in Person-centered Care in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20(2), 109-118. DOI : 10.17079/jkgn.2018.20.2.109
- [28] S. B. Kim & Y. Park. (2019). Factors associated with Person-centered Care for Elderly in Long-term Care Hospital Nurse.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31(6), 618-627. DOI : 10.7475/kjan.2019.31.6.618
- [29] H. J. Chae. (2019). Relationships between nursing competency and emotional intelligence and nurse role transi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9), 221-229. DOI : 10.14400/JDC.2019.17.9.221
- [30] K. Lützen, V. Dahlqvist, S. Eriksson & A. Norberg. (2006). Developing the concept of moral sensitivity in health care practice. *Nursing Ethics*, 13(2), 187-196. DOI : 10.1191/0969733006ne8370a
- [31] T. Muramatsu, M. Nakamura, E. Okada, H. Katayama & T. Ojima. (2019).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Ethical Sensitivity Questionnaire for Nursing Students. *BMC Medical Education*, 19(1), 1-9. DOI : 10.1186/s12909-019-1625-8
- [32] H. Y. Kim, Y. J. Lee & J. M. Lee. (2020).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Ethical Sensitivity Questionnair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31(4), 503-513.
DOI : 10.12799/jkachn.2020.31.4.503

[33] L. Hughes. (1993). Peer group interactions and the student-perceived climate for caring.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2(2), 78-83.
DOI : 10.3928/0148-4834-19930201-09

[34] J. H. Kim, M. Y. Kong & Y. H. Oh. (2016).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Peer Group Caring Interaction Scale-Korean Vers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6(3), 431-442.
DOI : 10.4040/jkan.2016.46.3.431

[35] D. Buhrmester, W. Furman, M. T. Wittenberg & H. T. Reis. (1988).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991-1008.
DOI : 10.1037/0022-3514.55.6.991

[36] N. R. Han & D. G. Lee. (2010).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n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2(1), 137-156.

[37] R. W. Lent, S. D. Brown, B. Brenner, S. B. Chopra, T. Davis, R. Talleyrand & V. Suthakaran. (2001). The role of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in the choice of Math/Science educational options: A test of social cognitive hypothes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4), 474-483.
DOI : 10.1037/0022-0167.48.4.474

[38] J. A. Lee. (2009).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social value and expectancy of occupation on career choice actions*. A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Graduate School, Daegu.

[39] R. Suhonen, M. L. Gustafsson, J. Katajisto, M. Välimäki & H. Leino-Kilpi. (2010). Individualized care scale - Nurse version: A Finnish validation study. *Journal of Evaluation in Clinical Practice*, 16(1), 145-154.
DOI : 10.1111/j.1365-2753.2009.01168.x

[40] E. H. Park. (2017). *Factors Related to Person-centered Car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41] D. Kim & H. Hong. (2011). A Study on the College Drop-out Rates Based on Curriculum Transition from High School to College.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12(4), 55-73.

[42] A. Milliken. (2018). Nurse ethical sensitivity: An integrative review. *Nursing Ethics*, 25(3), 278-303.
DOI : 10.1177/0969733016646155

[43] M. Kim. (2020). Factors influencing nursing students' person-centered care. *Medicina*, 56(8), 1-9.
DOI : 10.3390/medicina56080414

[44] J. Y. Lee & S. Y. Pak. (2016). The Impacts of Nurses' Psycho-social Health and Social Support from Colleagues on Patient Caring Abil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2(5), 461-470.

DOI : 10.11111/jkana.2016.22.5.461

[45] S. Y. Lee. (2020). *Impact of Manager Caring and Peer Caring On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among Newly Licensed Nurses*.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46] R. L. Barker. (2013). *The Social Work Dictionary, 6th Edition*. Washington, DC : NASW Press Publishing.

[47] J. Y. Lee, S. Lee & E. G. Oh. (2020). Conceptualization of Person-Centered Care in Korean Nursing Literature: A Scoping Review.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32(4), 354-363.
DOI : 10.7475/kjan.2020.32.4.354

조 인 영(In Young Cho)

[정회원]



- 2013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석사)
- 2018년 2월 :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2020년 8월 :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20년 9월 ~ 현재 :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 관심분야 : 파트너십, 가족중심간호, 간호교육
- E-Mail : kikiin1024@jnu.ac.kr

윤 지 영(Ji Yeong Yun)

[정회원]



- 2015년 8월 :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9년 8월 : 단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박사)
- 2019년 8월 ~ 2020년 8월 :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20년 9월 ~ 현재 : 예수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교육, 간호역량, 극복력, 만성질환
- E-Mail : yunjiyeong0221@gmail.com

김 효 진(Hyo Jin Kim)

[정회원]



- 2014년 8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8년 8월 : 조선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박사)
- 2019년 8월 ~ 현재 :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교육, 시뮬레이션, 핵심술기
- E-Mail : kimhyoddol@naver.com